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JET Programme

경험담

네 번째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Embassy of Japan in Korea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박수영 아오모리현 1-3

엄은솔 아키타현 다이센시 4-7

김경민 야마가타현 8-10

정예준 오이타현 나카츠시 11-13

Embassy of Japan in Korea





KJET 23기
박수영

CIR 아오모리현 2015~2019년
(青森県 国際交流員)



1.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

여러분은 국제 교류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국제 교류가 존재하는 만큼, 아마 많은 분이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생이 그렇듯, 저 역시 처음에는 스펙을 쌓기 위해 다문화 가정 멘토링을 하거나 일본으로 교환 유학을 다녀오며 소위 '국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은, 뜻밖에도 일본에 대한 '이해'가 아닌 '무지에 대한 자각'이었지요.

같은 아시아에 속한 이웃 나라이다 보니, 한국과 일본은 서로를 잘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미디어나 수업을 통해 일본의 단편적인 모습을 접하며, 제가 일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와 닮은 듯하면서도 전혀 다른 일본 문화에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공감하며 보낸 1년간의 교환 유학 경험은, 일본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외국'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지'를 '이해'로 넓혀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자, 저는 '국제 교류'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여행 랜드사에서 아르바이트하고, 한일 대학생 단기 연수 인솔을 맡는 등 경험을 쌓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JET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지원한 만큼 면접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지만, 다행히 인연이 닿았는지 보결로나마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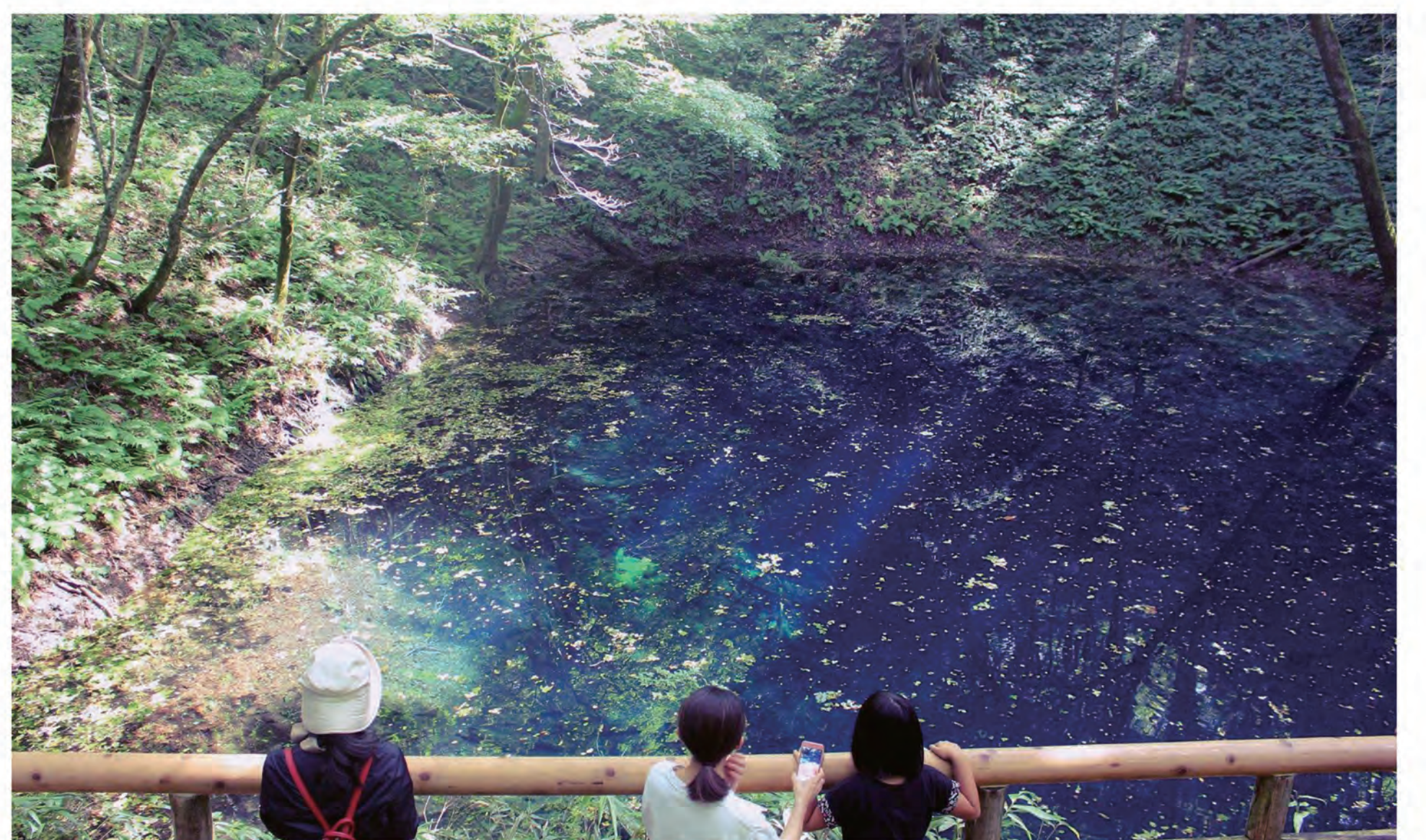
< 아오모리현 특산물 사과 >



<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성(弘前城) 벚꽃 >



< 네부타 제작 현장 취재 >



< 세계자연유산 시라카미산지(白神山地) >



2. 아오모리현에서 보낸 1,321일

아오모리현은 일본 혼슈 최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일 년 중 절반 가까이가 겨울이고, 그중에서도 석 달은 쉼 없이 눈이 내리는 설국이지요. 늦봄 피어난 벚꽃과 설산이 어우러지는 풍경이 지고 나면, 짧은 여름을 수놓는 등불 축제 '네부타 마쓰리'가 여름의 끝을 알리고, 사과가 맛있어지는 가을이 저물면, 다시 또 겨울입니다.

2015년 8월 27일 부임해서 2019년 4월 8일 임기를 마치기까지, 저는 아오모리현에서 1,321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근무한 부서는 아오모리현 유객교류과이며 국제 교류 및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매결연협정을 맺고 행정, 의회, 세계자연유산, 청소년, 미술, 스포츠,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향 25주년을 맞이한 인천-아오모리현 노선을 비롯해 각종 국제노선 유지 및 유치에도 힘쓰고 있지요. 그 덕분에 단순 통·번역은 물론 각종 교류 행사, 방문단 인솔, 취재, 팸투어, 지역 홍보, 인바운드 환경 개선, 강좌 등 다양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꼭 한국 관련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세기나 크루즈선 환영 이벤트에 동원되거나, 국내 팀 업무를 같은 과 일원으로서 서포트하기도 했습니다. 교류원이 되기 직전에는 막연하게 '한국을 알리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교류원이 되고 보니 '아오모리현을 한국에 알리는 일'의 비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원이기에 가능한 특이한 체험들도 많았는데, 다큐멘터리 취재에 동행해 오마(大間) 참치잡이 어선에 탑승하거나, 잡지 취재를 위해 새하얀 눈밭에서 자전거를 타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히가시도리무라(東通村)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전통 춤사위를 배우거나, 지자체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외국인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국제교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 같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가 보람을 느낀 것은 '어린이 미술 교류'나 '학교 방문'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제가 근무한 곳에서는 학교 방문이 다른 업무에 비해 등한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업무가 겹치면 학교 방문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했지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뿐인 교류 수업이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기도 했지요. 그래서인지 제게는 학교 방문의 가치가 아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경험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국인으로서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외국인으로서의 의견'을 요구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일본에서 살며 무엇이 불편했는지 차츰 잊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일본 조직 사회에서 직장생활이 가능할 만큼은 적응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일본에 물들면 국제교류원으로 불려온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모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절한 줄타기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국제교류원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 스노우 사이클링 체험 >



< 히가시도리무라(東通村) 노마이(能舞) 체험 >



3. 내 인생을 바꾼(?) JET 프로그램

지금 제 삶을 설명할 때 절대 빠트릴 수 없는 것이 바로 JET 프로그램입니다. 아오모리현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하고 스키를 배웠으며, 평생 알고 지낼 고마운 분들도 만났지요. 무엇보다도 같은 지자체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미국에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요. 부임 당시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어떤 인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만약 제가 보결로 선발되지 않고 바로 합격하거나 탈락했다면 제 삶은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4년 가까이 근무하며 항상 웃는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좋았던 일이든 힘들었던 일이든 아오모리현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만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지금은 미국에 정착해 근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ESL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국제 교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오모리현 부임 당시 계획했던 것과 다른 길을 선택했지만,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수업에서 만나는 일본인 친구들에게 '나 작년까지 일본에 살았어' 하고 말문을 틀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랄까요. 새로운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있노라면 새삼스레 제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간간이 번역 일을 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아오모리현 여행에 관한 책을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4. 버려낼 수 있는 용기

이 글을 읽으며 국제교류원이 된 자신을 상상해보셨나요? 제가 들려 드린 이야기는 아주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합니다. 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기대한 것과 다를지도 모르지요. 문화 강좌를 하고 싶었는데 통역 업무 위주인 사람도,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예산의 벽에 막혀 실천하지 못 하는 일도 있지요. 외딴 섬에 배치되어 도시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 동료와 갈등을 빚거나 무례한 손님 탓에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더라도 힘든 일 앞에 초심은 금방 잊히기 마련이지요.

JET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시기마다, 지자체마다 돌아가는 사정이나 업무 내용이 천차만별이기에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꼭 무언가를 이루지 않더라도 낯선 곳에서의 삶을 버려내는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단단함. 그 단단함을 가지고 JET 프로그램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행박람회 체험 부스 운영 >



< 이나카다레무라(田舎館村) 논 아트 >



KJET 24기
엄은솔

CIR 아키타현 다이센시 2016~2019년
(秋田県大仙市 国際交流員)

1. 잘못 든 길에서 만난 새로운 길

고교 시절, 저의 장래 희망은 우리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될 거라고는, 게다가 일본에 살면서 일까지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순전히 그 시기에 맞물려 일어난 여러 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물어올 때마다 좀 껌연쩍은 마음이 듭니다. 일본 문화에 큰 흥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본어를 배우기로 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답변을 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저는 늘 멋쩍게 답하곤 합니다. 그냥 어쩐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일본어를 전공으로 선택해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한동안은 학업에 소홀했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못 든 길 같아 그만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고교 시절 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당장은 네 길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우선은 그 길을 끝까지 가 봐라. 그 길의 끝에서 또 다른 길이 시작될 것이다.’ JET 프로그램은,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대학이라는 길을 간신히 완주하고 난 뒤 만나게 된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2. 다이센시에서 보낸 불꽃 같은 순간들

처음의 기억은 대체로 각별하게 기억됩니다. 다이센시(大仙市)에 처음 도착하던 날을 기억합니다. 때는 4월 중순이었고 도쿄에서는 이미 벚나무가 꽃잎을 다 떨구었을 무렵이었는데, 동북 지방의 등줄기를 이루는 오우(奥羽)산맥의 산봉우리에는 아직 새하얀 잔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벚꽃은 망울을 채 틔우기도 전이었습니다. 과장해 말하면, 한순간에 시공간을 뛰어넘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보던 ‘눈의 고장’에 왔다는 실감에,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사명감은 뒤로하고 철없이 설레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키타현 내륙지방에 위치한 다이센시는 8만여 명의 인구가 사는 작은 시골 도시입니다. 겨울이면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많은 눈이 내리고, 쌀과 술이 특히 맛있으며, 일본 3대 불꽃축제 중 하나로 손꼽히는 ‘오마가리 불꽃 축제(大曲の花火)’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다이센시의 세 번째 한국인 국제교류원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이센시청의 유일한 외국인 직원에 대한 호기심은 실로 대단해서, 부임 첫날부터 그간 겪어본 적 없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날 들었던 대부분의 말들은 첫날의 긴장감과 함께 기억 너머로 사라졌지만, 그런 와중에도 유난히 인상 깊게 남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실제로 처음 봐요.”



< 다이센시의 봄 >



< 다이센시의 겨울 >

누군가에게는 제가 처음 만난 한국인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처음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처음’이라는 말 덕분에, 국제교류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은 처음의 기억과는 달리 쉽게 희미해지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마지막까지 처음의 마음가짐을 간직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난 한국인으로 기억하는 누군가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교류원으로서 한 발짝 내딛던 순간이었습니다.



< 눈의 고장 아키라 >



< 오마가리 불꽃 축제를 알리는 폭죽 모형 >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새내기 국제교류원에서 1시간짜리 문화 강좌쯤은 여유롭게 소화할 수 있는 고참 국제교류원으로 성장하는 동안, 한국에 있었다면 겪어보지 못했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원의 업무는 임용 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다이센시와 같은 시정촌 단위에서는 대민 업무가 많아,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폭넓은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통·번역 업무와 우호 교류 도시 업무, 청소년 교류, 한국 문화 강좌, 학교 방문, 이벤트 개최, 홍보 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여러 업무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업무는 청소년 교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단단히 굳어진 편견이란 게 없어서,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짧게는 4박 5일, 길게는 일주일간의 청소년 교류를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교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한 뼘 자라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한다는 감동적인 소감을 들려준 참가자도 있었고, 실제로 교류에 참여해 보니 방송이나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르더라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직접 경험한 바를 믿겠다는 성숙한 소감을 들려준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스스로 돌아볼 때도 많았습니다.



<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



< 다이센시의 마스코트 ‘마루비짱’과 함께 >



청소년 교류가 가장 보람된 업무였다면, 우호 교류 도시 10주년 기념사업은 가장 잘 해내고 싶었던 업무였습니다. 국제교류원 부임 2년째였던 2017년은 다이센시와 우호 교류 도시인 충청남도 당진시가 교류 협정을 체결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2년에 걸쳐 당진시와 다이센시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기념식과 교류 사진전, 전통문화 전시회, 경제 단체 교류 회의 등 여러 행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했는데, 끝난 후에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 지은 뒤에 느꼈던 ‘잘 해냈다’는 성취감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이센시에서 보낸 3년은 그야말로 여름밤을 수놓는 불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빛을 내는形形色색의 불꽃처럼 다채로웠고, 뜨거웠고, 좋았던 꿈처럼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순간 빛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반짝이는 불꽃처럼, 후회 없이 반짝인 시간이었습니다.



< 우호 교류 도시 10주년 기념사업 >



< 지역 주민 대상 문화 강좌 >

3. JET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인연

JET 프로그램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갈 무렵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부임 첫해,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처음 만난 ‘사나’라는 이름의 학생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막 고교에 입학해 제 몸집보다 큰 교복을 입고 있던 사나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조심스럽게 용건을 물어왔습니다. 다가올 여름에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일 관계의 사정이 좋지 않을 때였는데도 사나는 약속대로 한국에 와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 시정 홍보지에 실린 칼럼 >



< 유치원 방문 >



< 학교 방문 >



JET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동안에는 단순히 다양한 ‘경험’을 얻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국제교류원 생활을 마치고 나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얻은 건 다름 아닌 ‘인연’이라는 것ですよ.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름조차 몰랐던 일본의 작은 도시에, 종종 이유 없이 안부를 묻고 싶어지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싶을 때면 언제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한국에 가게되면 꼭 보자고, 따뜻한 재회의 말들을 건네오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데 망설이지 말라며, 제 앞날을 순수하게 응원해주는 고마운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있어,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소중한 추억들 >

4. 잘못 든 길에서 만난 빛났던 시절

지난해 우연한 기회로 JET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예비 지원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듯했습니다. 참가자를 선발하는 시험이 어려울 것 같다며 지레 겁을 먹고 지원을 망설이는 예비 지원자도 있었고, JET 프로그램 종료 후가 걱정이라며, 혹시 나중에 선택을 후회할까 고민이 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예비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제게 JET 프로그램을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변함없이 JET 프로그램을 선택할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특별한 경험과 추억, 그리고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시 중에 강연호 시인이 쓴 <비단길 2>라는 시가 있습니다. ‘잘못 든 길이 나를 빛나게 했었다’는 소절로 시작하는 이 시는 ‘잘못 든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문장으로 마무리됩니다. 국제교류원으로서 JET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절이 제게는 오래도록 ‘잘못 든 길에서 만난 빛났던 시절’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JET 프로그램 지원을 꿈꾸거나 고민하면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께, 제 짧은 문장이 미력하나마 응원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 출근일에 깜짝 배웅을 나와주신 직원분들 >



KJET 24기
김 경 민

CIR 야마가타현 2016~2019년
(山形県 国際交流員)

1. 야마가타에서 시작된 JET라는 챕터의 첫 페이지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 저는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달하는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귀국 일주일 전, 일본에서 파견된 해외봉사단과의 친목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이 교류를 통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대한 순수한 흥미와 열의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고 봉사 활동을 하며 느꼈던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통한 국제 교류에 대한 보람을 일본에서도 맛보고 싶다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JET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하여 귀국 후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합격하여 2016년 4월, 동북 지방의 야마가타현에서 국제교류원이라는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시작되었습니다.

2. 야마가타현 한국인 국제교류원의 업무는?

저는 JET 프로그램에 참가 하는 동안 ‘야마가타현 국제교류센터’에 파견되어 센터 내 업무와 현청으로부터의 의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에서의 주된 업무는 이벤트 및 문화 강좌의 기획 및 실시, 다국어 정보지 발행이었고 그 외에는 출장 강좌, 통·번역, 취재 및 체험, 지자체 홍보 등 현청을 통한 다양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이벤트 및 문화 강좌는 기획, 강사 섭외, 포스터 제작 및 홍보, 당일 진행 등 모든 과정을 교류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담도 있었지만, 제약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행사로 실현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관련 강좌의 경우 제 관심사인 한식, 한복, 수공예를 살려 약과나 오미자를 대접했던 한국 궁중의 식생활 강좌, 한복입고 다과회, 규방 공예를 통한 연잎 티 매트 만들기 등을 개최하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특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찼습니다.

또한 다국어 정보지 발행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각 지역을 방문하여 취재하거나 초, 중, 고등학교 및 국제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로 출장 강의를 나가는 등 야마가타의 여러 지역으로의 파견 업무의 비중도 높아 다양한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각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직접 눈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야마가타의 여러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지자체 홍보를 위한 통역 및 번역을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눈 축제를 위한 이글루 제작, 영어 하이쿠 대회에 국제교류원 팀으로 참가, 스키장 특별 행사의 한국어 안내 방송, 한국 및 일본의 라디오 출연 등 파견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채로운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테마 강좌 - 한국 궁궐의 식생활 >



< 다과로 제공된 약과와 오미자차 >



< 한복 체험을 통한 문화 교류 강좌 >



< 스키장 이벤트에서 한국어 안내 방송 >

3. 하루하루가 여행 같았던, 즐거웠던 3년간의 야마가타 탐험

야마가타는 ‘일본인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풍요로운 자연이 매력적인 지역으로 ‘무라야마’, ‘오키라마’, ‘모가미’, ‘쇼나이’라는 네 개의 지방으로 구분됩니다. 각 지역의 색깔이 뚜렷하고 사계절마다 만날 수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달라 이에 관한 축제 등의 행사도 자주 열립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야마가타현 내의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그 지역의 먹거리를 맛보고 이벤트에 참가하여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교류원으로 생활하는 동안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을마다 열리는 이모니(토란탕) 축제에서 지름 6m 냄비에서 만들어진 이모니를 먹은 기억이나 눈으로 만든 료칸에서 은은한 불빛이 빛나는 모습을 바라보던 기억, 꽃으로 장식한 삿갓을 들고 여름 축제에서 춤을 추던 기억은 야마가타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좋은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야마가타에서는 야마가타 체리라고도 불리는 과일 ‘사쿠란보’를 비롯하여 ‘라프랑스’, ‘복숭아’, ‘샤인머스켓’ 등 여러 과일이 생산되고 있어 제철마다 과일 농장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지역의 포도 및 기타 과일을 사용하여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를 돌아 보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의 풍토와 맛있는 쌀, 깨끗한 물로 빚어낸 일본주 역시 야마가타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각 지역의 일본주 축제와 양조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야마가타 관광협회를 수시로 들러 지역 정보 및 새로운 이벤트 정보를 체크하기도 하고 입소문으로 정보를 듣기도 하며 이번 주말에는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것이 퇴근 후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혼자 방문을 하였지만, 점점 취미가 맞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며 혼자 참여했던 이벤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에는 일본주를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일본주 축제를 방문하였다 지역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것은 온천이었습니다. 처음 한국 손님들에게 야마가타현 지사님이 건넨 소개말을 통역할 때 모든 시정촌에서 온천수가 나온다는 말을 듣고 35개 모든 시정촌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 3년 동안 열심히 온천 지역을 순회하였는데 운전면허가 없어 하루에 세 대만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타거나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 내려 시골길을 한 시간 넘게 걸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마을의 온천에 도착하였을 때 느낀 뿌듯함은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그렇게 찾아다녔기 때문에 야마가타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합니다.



< 매년 여름 열리는 하나가사 축제의 인터내셔널 팀으로 참가 >



< 이모니(토란탕) 축제에 사용되는 지름 6m의 거대 냄비 >



4. 3년간의 국제교류 경험과 지금의 나와의 연결고리

3년 동안 국제교류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접한 키워드를 하나만 꼽으라면 ‘다양성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교류 단체들이 ‘다문화 이해’를 주제로 개최한 이벤트에 다양한 국가에서 온 JET 참가자들과 함께 강사로서 참가하기도 하였고 국제교류 센터에서 담당하는 이벤트 업무 역시 야마가타에 사는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게스트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강사의 역할로 때로는 진행자의 역할로 참여하였지만, 그곳에 함께 자리하며 저는 동시에 라 문화를 접하는 한 명의 참가자로서 시야를 넓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류 과정에서 매개 언어인 영어에 대한 오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JET 이후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제교류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영어권 화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완벽한 영어에 구애받지 않고 즐기며 대화를 나누는 것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웠고 마지막 해에는 영어 통역 없이 일본어와 영어로 교류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의 JET 참가자였던 그날의 게스트는 알고 있는 일본어를 충동위하여 설명을 도왔고 영어 표현이 어려울 때는 영어를 좋아하는 일본인 참가자가 대화를 나누듯 일본어의 빈 구멍을 채워주었습니다 JET 활동이 제게 알려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재미를 좀 더 탐구하고자 저는 현재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싱가포르의 한 대학의 단기 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새로운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막연하지만, 앞으로도 좋아하는 문화와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교류해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께

JET 프로그램은 저에게 새로운 시야에 대한 눈을 뜨게 해 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JET 프로그램을 꿈꾸며 그려왔던 한일 양국의 교류 활동도 할 수 있었고,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시야를 넓힐 수도 있었습니다. JET 프로그램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리는 국제교류는 전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업무 내용이나 생활, 얻게 되는 경험 역시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JET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얻게 되는 것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직접 생활하며 일본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국제교류에 관한 다양한 경험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았을 새로운 발견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 야마가타를 대표하는 과일 - 사쿠란보 >



< 눈으로 만든 료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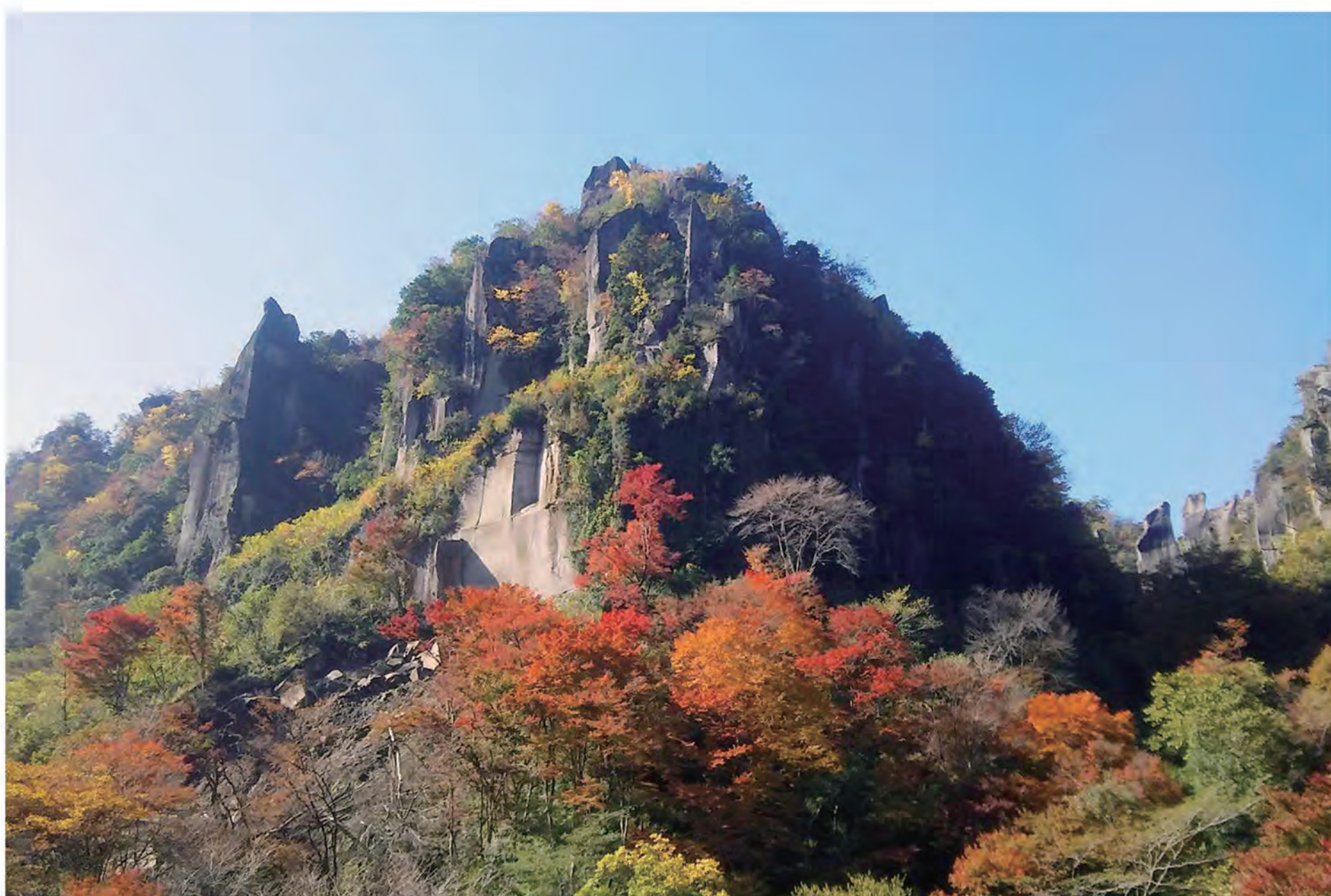
1. JET의 길로 GO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JET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재학 중 취업 시기가 되어 국내 취업과 일본 취업, 그리고 JET프로그램이라는 세 갈래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JET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급속도로 이끌리게 되어 고민 끝에 취업 활동을 뒤로하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JET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앞날에 대한 이런저런 불안감들이 컸기에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2. 나카츠 시와의 첫 만남, 기억에 남은 업무들

저는 오이타현의 나카츠 시청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인구 8만 정도 규모의 소도시였지만 합격의 기쁨이 앞섰는지 처음 배치처를 들었을 때부터 ‘어디든 사람 사는 곳이다’라는 생각에 그다지 걱정은 없었고, 실제로 생활하면서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카츠 시는 일본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가라아게의 성지이며, 가을에는 나카츠 시에 속한 야바케이 지역의 단풍을 보러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이 야바케이를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맞이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를 열기도 했습니다.



< 나카츠의 단풍 >



< 나카츠의 명물 가라아게 >

강좌 수강생은 이 지역에서 음식점을 영업하는 중, 장년층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에 가 본 적이 없거나 한국인을 손님으로 처음 대해 보는 분들이 많았기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기 위한 강좌보다는 한마디 인사라도 적극적으로 한국어로 건네보며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강좌로 진행했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으로 실제 방문한 손님과 짧게나마 대화한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실 때면 저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업무로는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했던 한국어 강좌입니다. 언제 어떤 긴급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며 한국인 부상자 등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강좌를 열어달라는 소방서의 요청이 있었는데 저는 이 요청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강좌 준비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강좌 때도 실제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소방대원분들을 보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운 강좌가 아니었나 합니다.



< 소상공인 대상 한국어 수업 >



< 소방서 한국어 강좌 기념촬영 >

그 밖에도 학교 방문이나 시민 대상 한국어 강좌 등 지역 주민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특별히 제 기억에 남은 것이 요리강좌입니다. 저는 요리와는 연이 먼 삶을 살았기에 국제교류원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되고 난 후에도 언제나 걱정했던 부분이 요리강좌였습니다. 혹시라도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3년 차 즈음 일이 조금 한가해져 문득 요리강좌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속 지자체 특성상 비교적 자유롭게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기에 흔쾌히 받아들여져 요리를 잘하는 동기들에게 온갖 수소문을 한 끝에 떡국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집하자마자 20명의 시민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그동안의 불안과 걱정들이 무색하게도 참가자분들께서 저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요리 실력으로 떡국을 똑딱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것 아닌 일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기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떡국 성공으로 용기를 얻어 그 뒤로도 다양한 요리 강좌를 열 수 있었습니다



< 첫 요리 강좌로 완성한 떡국 >



< 요리강좌 진행 모습 >



3. JET 프로그램이라는 강의 건너편으로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준비한 JET 프로그램이지만 어디로 배치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어 설레는 부분도 많았던 반면 불안한 부분도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지방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매일같이 그곳의 시민들과 접하는 경험은 하루하루가 신선했고 결과적으로 제 미래 계획을 많이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JET 프로그램으로 일본에 가기 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그때그때 JET 프로그램 종료 후 어떤 길로 나갈 지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변심이 심한 것도 한몫을 했을 테지만, 하루하루의 경험에서 오는 자극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5년간의 JET 생활을 끝마치고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JET 경험이 없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도전임을 알기에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어준 5년간의 JET 생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나카츠시 시장님의 감사패 수여 >

4. 앞으로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도 없이 찾아보았던 국제교류원들의 경험담이나 시험 합격 수기들은 그때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합격 후의 제 모습을 상상하며 어떤 일을 맡게 될지, 또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면접에서도 좋은 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짧은 글이지만 앞으로 JET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00~12:00 / 13:30~17:30), 대사관 휴관일 제외

주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64

문의 | 02-765-3011 ~3 (내선 140) jet@so.mofa.go.jp

Embassy of Japan in Korea

<https://www.kr.emb-japan.go.jp/cult/JET.html>